2021 신축년(辛丑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사회적 위상과 기대

하 상 도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코로나의 불안감 속에 드디어 신축년(辛丑年) 흰 소(白牛)의 해가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났고 식품산업계에는 득(得)도 실(失)도 가져다 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올 2021년은 끈기와 인내의 상징인 소(牛)의 해라 그 동안 잘 참고 견뎌 온 식품과학자들과 식품산업에 큰 선물을 가져다줄 멋진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학회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식품안전 분야에 특화해 1986년 창립 이래 35년간 우리나라 식품안전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매년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제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인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와 정보정책지인 'Safe Food'를 발간함으로써 식품안전 최신 학술정보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식품 관련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잘못 전달돼 오해를 줄 경우 해당 식품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독(毒)으로까지 여겨지게 때문에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큰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방송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분야입니다.

발표되는 모든 식품안전 관련 자료는 신뢰가 생명인데, 많은 소비자들은 아직도 학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엉터리 학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이해 당사자의 입 역할을 해 오면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해 온 사례가 많았고 효율성이나 국익은 따지지 않고 국회나 시민 · 소비자단체의 비현실적인 요구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산업계나 학계의 합리적 요구엔 귀를 닫았던 고집불통 정부의 정책과 규제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는 식품안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정책과 제도의 합리화와 더불어 사회에도 적극 참여해 건전한 식품안전 정보의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파급력이 큰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시행에도 적극 참여해 객관적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성장과 국가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헌신해 오신 본 학회 임직원들과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계신 156명의 이사회원, 419명의 평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학회를 통해 모든 회원님들이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또한 부탁드립니다.